

포스트휴먼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의 의미에 대한 고찰:

경쟁이 아닌 상호의존적 협력의 존재

이은경*

【요약】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고유의 의식과 무의식적 알고리즘까지도 디지털 정보로 환원하려는 포스트휴먼의 기호자본주의 시대는 인간의 노동마저도 ‘네트워크화된 노동’, 즉 ‘인지노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에 따라 이 시대의 인지노동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노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 여겨져 왔던 ‘언어, 정서, 소통, 창의성, 상상력’마저도 자본주의적 가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한 채, 자아실현과 행복마저도 경쟁 구조 속에서 오직 승자가 되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99%의 패자들은 권태, 무의미함, 혐오, 우울감 등이 삶을 지배하는 “테디움 비테”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라는 ‘사회병리적 신드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호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는 무한경쟁과 추격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는 ‘경쟁’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해체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성의 영혼이며, 연대와 협력의 근거가 되는 ‘공감’은 나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에 기반을 둔 연대”, 즉 협력은 자아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인간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호자본주의, 무한경쟁, 우울증, 공감, 협력

I. 들어가는 말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를 넘어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더 나아가 ‘호모-데우스’까지 회람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혹은 ‘인간됨being-human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고 긴급한 물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라시’는 전체 도시민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정치 체계가 아닌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주도하는 정치였고, 그들만이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유색인종, 특히 흑인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초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의미하는 단어는 ‘Rights of man’¹⁾으로, 이 안에 여성은 없었다. 이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투쟁, 미국의 남북전쟁 등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이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인권을 의미하는 단어도 ‘Human Rights’로 바뀌었다. 이것은 비인간 범주에 속했던 이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이라는 개념적 범주가 그 시대의 정치질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각각의 시대는 당대의 시대체계에 적합한 인간 개념을 구축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을 발산해 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포스트휴먼의 기호자본주의 시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곧 우리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포스트휴먼이

1) 인권, 즉 ‘인간의 권리’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된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에서 처음 등장했다.

직면한 사회병리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됨의 구성조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위기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회복해야 할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기호자본주의 시대 포스트휴먼의 위기: 사회병리학적 신드롬이 된 우울증

포스트휴먼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이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소비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기호자본주의(semiocapitalism)’로 진화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노동도 산업노동에서 “네트워크화된 노동”으로 바뀌었고, “생산 과정 그리고 주체화의 경로”까지 모두 바뀌었다. 이 새로운 형식의 행위주체들은 디지털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재조합하는 ‘정보노동’을 수행하는 “코그니타리아트(cognitariat)”이며, 이들은 ‘인지노동자’, ‘정보노동자’라고 불린다. “불안정(precarious) 노동자, 예술가,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오늘날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실업 상태에 놓인, 과도(한) 생산에 착취당하는 창의적인 계급”이다.²⁾

더이상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영혼[정신]이 노동하도록 강제되는”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언어, 정서, 소통, 창의성, 상상력들은 “자본주의적 가치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고, “정신, 강렬한 에너지, 심리[권]psychosphere 자체를 착취하는 장”으로 전락했다.³⁾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수자에 속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동원되어 “기호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2)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7.

3)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8.

자신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도구처럼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⁴⁾ 그러므로 오늘날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문제는 ‘노동의 소외’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 공황, 우울증, 고독, 성적 고통, 공격성이 흘러넘치는 사회”로 바뀌면서 발생한 ‘정신병리적 문제들’이다.⁵⁾ 이것은 더이상 리비도의 억압에 의해 결정되는 신경증적 병리학이 아니라, ‘하면 된다just do it’라는 말이 지닌 폭발력이 만들어낸 정신분열적 병리들이다.⁶⁾

또한 기호자본주의 시대는 더이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의식, 인격, 마음의 특성까지도 디지털 정보로 환원하여,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호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시스템, 즉 ‘무한경쟁’을 통해 패자들을 속아내는 시스템이 놓여있다. 이 승자독식의 시스템 안에서 0.1%의 초부유층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본을 통해 스스로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하지만 인간과의 경쟁에서뿐 아니라, 기계와의 경쟁에서도 밀려난 나머지 99.9%에 속하는 생물학적 인간들은 퇴행하는 무리로 시스템 밖으로 쫓겨날 운명에 놓여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우울증의 근원적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병리적 신드롬’이 된 우울증은 “자기실현 이데올로기와 행복 명령”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승자독식 시스템 안에서는 자아실현과 행복 성취도 경쟁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은 언제나 실패와 패배를 전제하지만, 행복은 결코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경쟁에서 실패한 이들이 행복을 누릴 기회는 없다. 이와 같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4) 김원영 (2018), pp. 41-43.

5)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8.

6)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254-255.

사람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전력을 다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⁷⁾ 그동안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해온 ‘우리’라는 사회적 연대나 소속감은 “다른 사람과의 질투 어린 비교와 내 자신이 그 비교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자리⁸⁾를 내주었고, 결국 ‘추격주의’가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무한경쟁의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향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당신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라고 여긴다. 현실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도 하향 비교는 충분히 작동한다. 두 번째는 ‘상향 비교’로, 나보다 더 성공했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강렬한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좌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전세계가 하나도 연결된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상위 1%의 갑부, 성공한 사람, 셀럽의 모습을 보며, 실망을 넘어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미디어는 이것을 더욱 강화시킨다.⁹⁾

이러한 무한경쟁 사회구조 안에서의 ‘비교’는 극심한 우울증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특히 “이전에 자기도취적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더이상 경쟁의 긴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곧 실패자”라는 인식으로 귀결된다.¹⁰⁾ 결국 우리는 나의 의식과 세계 사이의 교환관계를 상실함으로써, “삶 자체에 대한 권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무의미함과 혐오감,

7) Ehrenberg (1998), p. 10;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139-142 재인용.

8) 올리히 슈나벨, 이지윤 역 (2020), p. 45.

9) 올리히 슈나벨, 이지윤 역 (2020), pp. 45-48.

10)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145.

그로 인한 우울감” 등을 의미하는 “테디움 비테(*tedium vitae*)”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¹¹⁾ 에리히 프롬을 이것을 “세기의 질병”¹²⁾이라 불렀으며, 오늘날 전세계 많은 이들이 점점 더 이 질병에 감염되고 있다.

Ⅲ.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간됨의 구성조건들

포스트휴먼(*posthuman*) 혹은 트랜스휴먼(*transhuman*)이라는 사조는 “우리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상, 우리의 유기체적 정체성은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테크놀로지를 통해 대체될 수 있다는 사상”¹³⁾을 말하며, 오늘날의 기호자본주의 시대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모 테우스’의 시대를 예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의식, 인격 그리고 마음까지도 디지털 정보와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 자만’과 동시에 “우리가 인간다움에 대한 인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간성 상실’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몸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것은 곧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인간됨’이란, 마음과 몸이 주위환경을 자신의 “주변세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적소 구성”을 통해 창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적소(*niche*)’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¹⁴⁾ 특히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주체적 실재(*intersubjective reality*)”¹⁵⁾를 의미의 망으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적소’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막연한 미래로 매일 점점 더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11) 빅터 브롬버트, 이민주 역 (2015), p. 40.

12) 에리히 프롬, 장혜경 역 (2016), p. 29.

13) 로완 윌리엄스, 이철민 역 (2019), pp. 44-45.

14) Hoffmeyer (2008), pp. 73-83.

15) Harari (2015), p. 144.

우리 종의 서사시 자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¹⁶⁾ 속에 있으며, 하라리는 이러한 인간을 “이야기꾼 story-teller”¹⁷⁾이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은 유기체적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간 두뇌의 능력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미래들을 상상하고 계획을 세워 그 미래들 가운데 선택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¹⁸⁾ 물론 이렇게 의식을 통해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우리 안에 내장된 생물학적 알고리즘과 분리된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의식 안에서 이 알고리즘을 예물례 이션하면서, 인간은 알고리즘과는 조금 다른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 ‘조금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운로드한 디지털 정보는 우리 자신, 즉 인간 자체를 대변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다. 한번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결정력, 이것이 바로 ‘인간됨’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 능력을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가장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미디어 활동가인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Franco [Bifo] Berardi의 『노동하는 영혼』The soul at work을 중심으로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간됨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이란 결코 기호로 환원될 수 없는 ‘신체/몸’을 기반으로 타자와 갈등하며 동시에 공생을 꿈꾸는 관계적, 협력적, 사회적 동물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16)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2016), p. 196.

17) Harari (2015), p. 155.

18)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2016), p. 16.

1. 영혼의 신체성 - 신체의 ‘클리나멘’

베라르디는 오늘날의 기호자본주의와 디지털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미를 ‘영혼의 자율성’에서 찾는다. 베라르디가 말하는 영혼은 신체와 분리된 정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물학적 물질을 생동하는 신체로 전환하는 활기찬 숨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라르디는 유물론적 방식으로 영혼을 “신체의 영혼” 혹은 “신체의 클리나멘”으로 정의한다.¹⁹⁾ ‘클리나멘clinamen’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세계창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탈적 원자’를 말한다. 에피쿠로스의 초기 우주에서 모든 원자는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낙하하는 운동 속에 있다. 그러나 모든 원자가 이 수직운동을 계속할 경우, 물질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원자들 간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원자들 중 하나가 사선으로 낙하하기 시작했고, 모든 원자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공간에서 ‘사선으로 낙하하는 원자’로 인해 원자들 간의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사선으로 낙하하는 원자가 바로 ‘클리나멘’이다. 이 클리나멘으로 인해 원자들의 접촉이 발생했고, 그 결과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클리나멘”이라는 말은 이탈적 원자처럼, “신체를 낙하하도록 만들고 다른 신체들과 우연히 만나도록 만드는 것”²⁰⁾을 의미한다.

그때 갑작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이탈 또는 벗어남 즉 클리나멘이 신체들을 서로 기대게 하고, 신체들은 마침내 영구적인 방식으로 조우한다. 영혼은 피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이러한 벗어남의 각도이며, 따라서 이 신체들을 함께 끌어당기는 무엇이다. 영혼은 신체들 내부에 숨어 있다기보다는 신체들과 거리를 유지한다. 영혼은 신체들 사이에 있다. 영혼은 신체들의 응집성이며, 신체들이 함께

19)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31.

20) 제이슨 스미스·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14.

지니고 있는 친근성이다.²¹⁾

이러한 만남, 접촉 그리고 접촉을 가능케 하는 이타성이 바로 ‘영혼’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단순히 지적 조작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세계를 함께 직조하는 정동적이고 리비도적인 힘들”, 즉 “애착과 취향, 유혹과 의향이 얹혀있는 망”이며, 모든 신체가 나뉘어지고 있는 어떤 형태나 사물이 아니라, “리듬, 특정한 진동방식, 공명” 혹은 “주파수, 조율 또는 울림”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러므로 “타자에게 말을 걸고, 타자를 보살피며, 타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영혼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오늘날 윤리적 문제는 영혼의 문제로서, 다시 말하자면 신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체가 타자를 향해 동정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는 감각의 문제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학적이고 언어적인 영혼은 신체들의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다.²³⁾

오늘날 윤리가 붕괴된 주된 원인은 이러한 영혼의 공명, 울림이 사라지고, “사회적 심리계 속의 공감”이 마비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이상 근대의 “이성과 의지의 이항식”이나 ‘합리주의’를 윤리의식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오히려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윤리는 철저히 ‘인간’에 뿌리내리고, 무엇이 우리 사회에 “비공감” 정서를 확대, 강화시키는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베라르디는 오늘날 사회에 비공감 정서를 확대시킨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미디어화가 점점 가속화된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경험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킨 것, 세 번째는 디지털 영역 속의 공적 공간들이 탈성脫性화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결국

21) 제이슨 스미스·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15.

22) 제이슨 스미스·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14-16.

23)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192.

타자에게 말 걸고, 보살피고, 호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상실을 가져온 포스트휴먼의 “조울 정신병의 원인”이며, 사회심리적으로는 “공황과 우울증”을 양산해 내고 있다.²⁴⁾ 따라서 기호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우울증, 공황과 같은 정신병리적 현상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신체성’을 회복하고, 신체가 타자를 향해 열리는 ‘공감’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의 갈등 속에서 공생하는 사회적 동물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다움’이란 인간이 사회성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 알고리즘에 묶인 체,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의식의 이야기적 구조로 변형시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계획하여 알고리즘적 결정방식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윌슨은 “진사회성eusociality”을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 핵심적인 것으로 보았다. 진사회성이란 “진정한 사회적 조건”을 가리키는 말로, 진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대인관계”가 필요하고, “동료 구성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매 순간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억력”,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연습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 능력들을 통해 인간은 홀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집단으로 모여 협력하면서 생존가능성과 번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24)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192-193.

25)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2016), pp. 21-24.

지금까지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을 가능케 하는 ‘협동’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포괄적 적합도 이론inclusive fitness theory’²⁶⁾으로, ‘친족 선택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한 유전자 선택 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유기체는 유전자의 복사와 전달이라는 궁극적 기능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력과 공생의 방식을 활용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데이빗 윌슨David S. Wilson과 엘리엇 소버Elliott Sober가 주창한 ‘다차원 선택 이론multi-level selection theory’으로, 유전자, 개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역학이 자연선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²⁷⁾ ‘다차원 선택 이론’은 개체 선택의 수준에서는 언제나 이기적 개체가 이득을 얻지만, 집단 수준에서는 언제나 이타적 개체가 더 많은 집단이 유리하다는 역설적 상황에 주목한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이 동시에 존재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체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차원 선택 이론’이 인간의 ‘협동’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두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근대 이후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은 ‘포괄적 적합도 이론’이 제시하는 인간상에 더 가깝고, 인간을 이전과는 다른 상상력으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창조성의 영혼으로 볼 경우는 ‘다차원 선택 이론’의 관점에 더 가깝다.

‘친족 선택’과 ‘다차원 선택’ 간의 이론적 갈등 속에서 윌슨은, 인간은 본래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집단에 삶을 의탁하도록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을까?”라고 묻는다. 이 물음은 곧,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이며, 이에 대해

26) Sober & Wilson (1998), p. 55.

27) Sober & Wilson (1998), pp. 101-131.

월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 인간은 “양쪽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본래 갈등하는 존재”다.²⁸⁾ 즉,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본성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며, 개체수준에서의 이기적 성향과 집단수준에서의 이타심, 협동 성향은 한 개체의 행동에서 심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인간은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월슨은, 인간은 언제나 이 “두 극단적인 힘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끊임없이 요동”하는 “영구히 갈등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 힘을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의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인류의 멸종을 재촉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개체선택에서 작용하는 이기적 성향에 모든 결정을 내맡긴다면, “사회는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인간의 이타주의적 행동과 협력 행위는 생존을 위한 사회적 분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생물학적 알고리즘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으로부터 도래한 것이다. 한 마디로, 인간 개체자들은 내적으로는 여전히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타적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결코 한 생물의 세포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운명을 추구한다.³⁰⁾

그러므로 내면의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 간의 갈등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형질”이며, 이 갈등이 생물학적 알고리즘의 고정된 결론을 넘어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이 갈등으로 인해 “감정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이타적으로 협력할 것이냐의 심리적 갈등에서 유래한 이 불안정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리상태가 아니라, “인간성의 핵심”이며, “창의성의 원천”이다.³¹⁾ 이 내면의 갈등은 오히려 우리 삶이 몸을 매개로 한 타자와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근원적 조건임을 알려

28) 에드워드 월슨, 이한음 역 (2016), p. 31.

29) 에드워드 월슨, 이한음 역 (2016), pp. 37-38.

30) 에드워드 월슨, 이한음 역 (2016), p. 113.

31) 에드워드 월슨, 이한음 역 (2016), pp. 202-203.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본래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이 갈등하는 불안정성 속에서 타자와 공생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몸을 통한 관계적 의식으로서의 인간

인간은 생물학적 몸을 기반으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먼의 사조가 밀려들면서, 인간이 유사 이래 “가장 큰 도덕적 딜레마”³²⁾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유전형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도전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들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결정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지 선택volitional selection”을 통해 우리의 의도대로 진화를 이끌어가는 결정이 될 것이다. 1997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가타카Gattaca>의 배경이 된 미래 세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타카는 ‘인간향상기술Human Enhancement Technology’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본성까지도 의식적으로 선택”³³⁾할 수 있는 세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우리를 만들어왔던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물학적 측면들과 인간 본성을 재설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와 표현형질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 예를 들면 시험관

32)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2016), p. 16.

33) 이은경 (2016), p. 46.

수정을 통해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안톤처럼(<가타카>에 등장하는 빈센트의 동생), “수명을 더 늘리고, 기억력을 더 향상시키고, 시력을 좋게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고, 뛰어난 운동능력을 갖추고, 기분 좋은 채취를 풍기”³⁴⁾는 유전형질들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는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본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지능 알고리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식은 무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자리 잡고 located” 있으며, “관계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식한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존재의 위치와 연관하여 자신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관점을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 어떤 것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그림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식은 “관계적”, “협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의식이 이처럼 협력적, 사회적이며, 다양한 정보들을 1인칭의 관점으로 일관성있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적으로 의식이 이야기적, 즉 내러티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현재의 자극을 과거의 자극과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적 구조로 인식하며, 그 이야기적 구조의 주인공이 바로 ‘자아’다. 또한 우리는 의식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기억의 조각들과 현재의 경험들을 엮어 이야기하는 1인칭 ‘주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전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즉, 나는 “내레이터이지만 동시에 ‘내레이션의 대상’”이고, “행위자이면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는 동시에 또한 보여”진다.³⁶⁾ 이처럼, ‘의식consciousness’이란 언제나 “함께-아는-것con-scious-ness”³⁷⁾이다.

34)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2016), p. 17.

35) 로완 윌리엄스, 이철민 역 (2019), pp. 25-30.

36) 로완 윌리엄스, 이철민 역 (2019), p. 34.

인간 의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관계적 이해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 즉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내가 “관계의 그물망 중앙에,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지점은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교차하고 중첩되며,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는 지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는 존재는 “일정한 변화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 속에서 자신의 인격 혹은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³⁷⁾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실존 안에서 현존하거나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환경, 즉 ‘적소’를 창조한다. 이러한 상호성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딘가에 ‘정초된’ 의식을 통해 타자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결국 ‘신체/몸’이라는 기본적 토대가 필요하다. ‘몸’이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어딘가에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타자와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상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관계는 어디에도 정초되지 못한 허상으로서의 관계이다.

IV.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의미:

경쟁이 아닌 상호의존적 협력

GNR 혁명과 인간향상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고유의 의식과 무의식적 알고리즘까지도 디지털 정보로 환원하려는 포스트휴먼의 기호자본주의 시대는 인간의 노동마저도 ‘네트워크화된 노동’,

37) 캐서린 켈러, 박일준 역 (2020), p. 198.

38) 김재인 (2017), p. 353.

39) 로완 윌리엄스, 이철민 역 (2019), p. 53.

즉 ‘인지노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에 따라 이 시대의 인지노동은 인간의 ‘정신/영혼’까지도 노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 여겨져 왔던 ‘언어, 정서, 소통, 창의성, 상상력’마저도 자본주의적 가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한 체, 자아실현과 행복마저도 승자와 패자의 경쟁 구조 속에서 오직 승자가 되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99%의 패자들은 권태, 무의미함, 혐오, 우울감 등이 삶을 지배하는 “테디움 비테”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고, 인간관계마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때, 우리가 느끼는 고립, 우울, 무력감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이런 도구화와 소외가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자아와의 관계”이며,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느끼게 된다.⁴⁰⁾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진지하게 대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나는 공기와 같은”⁴¹⁾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테디움 비테’의 상황을 넘어,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을 향상시키고, 모든 것을 디지털 기호로 환원하는 포스트휴먼 기호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몸과 영혼의 ‘신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 속에서 ‘공생’을 꿈꿔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을 기반으로 관계의 그물망을 엮어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가인 알피 콘Alfie Kohn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쟁”을 최악으로 꼽는다. 물론 혼자 놀고, 혼자 먹고, 혼자 일하는 ‘각자도생’도 고립이나 우울을 불러오지만, “서로의 적대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경쟁이야

40) 에리히 프롬, 장혜경 역 (2016), pp. 111-112.

41) 에리히 프롬, 장혜경 역 (2016), p. 149.

말로 사회를 해체하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⁴²⁾ 오늘날 사회구조적인 경쟁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적대시하게 만들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막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⁴³⁾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은 경쟁이야말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발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스피로 애그뉴Spiro Agnew는 “경쟁 없는 사회란, 재미없는 경험 … 낙오자들의 파도 없는 바다 … 실패의 껍질을 뒤집어쓴 자기만족의 평범함 … 그들의 심리적 피난처”⁴⁴⁾라고 거침없이 비하했다. 경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공(혹은 생산성, 목표달성)이 곧 경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이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⁴⁵⁾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모든 분야, 전 연령층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좋은 결과(생산성)를 보였으며,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협력적 상황에서 확실히 더 복잡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며,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더 높은 인지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쟁보다 협력이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당연히 상호의존적일수록 협력에 더 도움이 되었다.⁴⁶⁾

42)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 236.

43)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p. 108-109.

44) Agnew (1979), p. 119;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 83 재인용.

45) Clifford (1972); Goldman et al. (1977); 정용교·백승대 (2011); 목영해 (2010).

46)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p. 87-90.

협력은 사람들을 단지 어떤 집단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공통의 노력이 결과물로 산출되고, 목표를 서로 공유하며, 각 개인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연결되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에 집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협력은 아이디어와 도구를 공유하고, 때로는 분업을 하고, 그 일이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⁴⁷⁾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한경쟁과 그 결과로 인한 승자독식의 구조가 유일무이한 사회시스템이 아니며,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개인에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이다. 알피 콘에 따르면, 협력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특히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격려받을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을 좀 더 배려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협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서 서로 간에서 신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⁴⁸⁾ 그래서 베라르디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우정’ 개념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우정이란, “의미를 공유하는 것, 시각과 공통의 리듬-가타리의 어법에 따르자면, 공통의 후렴[반복구]-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또한 경쟁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즉 성공만을 위해 경쟁하는 집단에서는 “독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발성, 복잡성,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⁵⁰⁾ 이것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기호교환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호자본주의의 또 다른 부산물이기도 하다.

47)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 91.

48)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p. 237-238.

49)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310-311.

50) 알피 콘, 이영노 역 (2019), p. 96.

기호들, 상징들, 그리고 정보-자극이 둘러싼 세계의 가속도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울증은 공황의 가속화 뒤 나타나는 욕망의 불활성화이다. 당신이 더이상 당신의 두뇌를 자극하는 정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은 소통의 장을 떠나 어떠한 지적이고 심리적인 반응도 할 수 없게 되기 쉽다.⁵¹⁾

이반 일리치는 이미 오래 전에 이제까지 “만족스러운 행위를 표현할 때 쓰던 말은 대부분이 ‘동사’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수동적 소비를 하도록 고안된 상품을 가리키는 ‘명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⁵²⁾며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호자본주의 사회에는 그 명사마저도 “꼴없는 이름씨인 추상명사”⁵³⁾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인간됨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진짜와 허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더이상 가상이나 추상이 아닌 실제의 ‘구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구체성을 가진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제대로 “보고 응답하고 인식하고 인식 대상을 알아보는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호기심은 사라지고, 더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집중을 요하는 “깊이 질문하는 습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이언 레슬리는 “디지털 기술이 ‘노력’과 ‘지적 탐험’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있다”⁵⁵⁾고 꼬집는다.

오늘날 기호자본주의는 빠른 속도에 기반을 두고서, 택배부터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절대적인 척도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 또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공지능적 알고리즘의 통제 아래 놓인 세상에서

51)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p. 309-310.

52) 이반 일리치, 허택 역 (2014), p. 6.

53) 이은경 (2019), p. 452.

54) 에리히 프롬, 장혜경 역 (2016), p. 193.

55) 이언 레슬리, 김승진 역 (2014), p. 22.

노동은 “저스트인타임just-in-time 생산”으로 조직되고, 영구적인 임시 노동력을 통해 유지된다.⁵⁶⁾ 문화 영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화나 미디어의 빠른 속도는 사뭇 “현란”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속도를 지향하는 문화를 리처드 드 그랑프르Richard De Grandpre는 “속사포 문화Rapid-fire-Culture”라고 불렀다. 이러한 속사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외부세계의 정신없는 분주함과 내면의 공허가 일치하면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새 주의력 결핍 신드롬 같은 증상”에 빠지거나, 외부의 분주함과 내면의 공허가 어긋날 때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⁵⁷⁾

뿐만 아니라, 기호자본주의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급 불평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경제 환경은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배운 자들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양극화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에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의 “지적 양극화”이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로, 존 듀이에 따르면, 호기심은 본능적 단계를 거쳐 사회적 단계로 나아간다.⁵⁸⁾ 태어나면서부터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생기지만, 이후 사회적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요구된다. 호기심은 “양육 습관, 교육 제도, 교육 방식, 사회가 호기심에 보이는 태도, … 인터넷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 호기심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⁵⁹⁾

이런 맥락에서 이언 레슬리는 찰스 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보의 시대 이후에는 선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추구하기로

56) 제이슨 스미스·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서창현 역 (2012), p. 18.

57) 송순재 (2011), p. 154.

58) 존 듀이, 정희욱 역 (2011), pp. 37-41.

59) 이언 레슬리, 김승진 역 (2014), pp. 145-148.

‘선택’하기 위해” 그리고 속사포 문화가 점령한 세상에서 진짜와 허상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 호기심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다.⁶⁰⁾ 즉,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유기체나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지점, 즉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기 때문이다.⁶¹⁾

V. 나가는 말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호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식, 인격, 마음까지도 디지털 정보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육체가 아닌 ‘정신/영혼’이 노동하도록 강제하고, 인간의 언어, 정서, 상상력, 창의성마저도 자본주의적 도구로 바꾸면서 ‘인간다움의 상실’이라는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절대적 패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경쟁 구조 안에서는 자기실현과 행복마저도 경쟁에서의 승리로 환원되고, 언제나 실패와 패배를 전제하는 경쟁구조 안에서 승자는 오로지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위 1%에 들지 못한 나머지는 언제나 실패자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극심한 무력감, 우울증, 좌절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으며, 더이상 경쟁에서의 긴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자아는 결국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테디움 비테’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라는 ‘사회병리적

60) 이언 레슬리, 김승진 역 (2014), p. 31.

61) 에리히 프롬, 장혜경 역 (2016), p. 48.

신드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호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는 무한경쟁과 추격주의, “개인들이 서로 밀치며 경쟁하는 ‘팔꿈치사회’”⁶²⁾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는 ‘경쟁’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해체하는 적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성의 영혼이다.

물론 인간의 내면에서는 이타적 본성과 이기적 본성이 늘 갈등한다. 그러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간은 이기적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타적 행동과 협력을 선택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를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의 사회로 보는 한, 우리는 결코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바로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상호의존적 협력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공생 공동체로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다를 것이다.

실패자로 낙인찍힌 99%의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연대, 협력이야말로 기호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공감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대와 협력의 근거가 되는 ‘공감’은 나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연민sympathy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empathy이다. 이러한 “공감에 기반을 둔 연대”⁶³⁾, 즉 ‘상호의존적 협력’은 자아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인간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62) 이찬수 (2015), p. 123.

63) 이찬수 (2015), pp. 124-125.

참고문헌

- 김원영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파주: 사계절.
- 김재인 (2017),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 철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사고력 강의』, 서울: 동아시아.
- 목영해 (2010), 「호모 사케르로서 학생과 경쟁교육정책」, 『교육철학연구』, 50: 105-119.
- 송순재 (2011), 『상상력으로 교육에 맡길기』, 서울: 아침이슬
- 이은경 (2016),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위한 교육』, 서울: 길밖의길.
- _____ (2019), 「중독을 유발하는 사회와 교육 그리고 치유 가능성에 대한 탐구 - 클리어 지침과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6: 441-472.
- 이찬수 (2015), 「탈폭력적 폭력: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의 유형」, 『폭력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pp. 105-132, 파주: 아카넷.
- 정용교 · 백승대 (2011), 「경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 현장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8(2): 91-106.
- 로완 윌리엄스 (2018), 이철민 역 (2019), 『인간이 된다는 것 - 몸, 마음, 인격』, 서울: 북있는사람.
- 빅터 브롬버트 (2013), 이민주 역 (2015), 『유한성에 관한 사유들』, 서울: 사람의무늬.
- 알피 콘 (1992), 이영노 역 (2019), 『경쟁에 반대한다 - 왜 우리는 이기는 일에 삶을 낭비할까』, 서울: 민들레.
- 에드워드 윌슨 (2014), 이한음 역(2016), 『인간 존재의 의미 -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을 위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 에리히 프롬 (2000), 장혜경 역 (2016),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 에리히 프롬 진짜 삶을 말하다』, 서울: 나무생각.
- 올리히 슈나벨 (2018), 이지운 역 (2020),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서울: 인플루엔셜.
- 이반 일리치 (1978), 허택 역 (2014),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 시장 상품 인간을 거부하고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 서울: 느린걸음.
- 이언 레슬리 (2014), 김승진 역 (2014), 『큐리어스 - 인간의 네 번째 본능, 호기심의 모든 것』, 서울: 을유문화사.
- 제이슨 스미스 ·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2009), 서창현 역 (2012), 「서문: 파업과

- 영혼」, 『노동하는 영혼 - 소외에서 자유허로』, 14-29, 서울: 갈무리.
- 존 듀이 (1910), 정회욱 역 (2011), 『하우 위 씽크 -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서울: 학이시습.
- 캐서린 켈러 (2007), 박일준 역 (2020), 『길 위의 신학 -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가운데 분별하기』, 서울: 동연, 2020.
-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2009), 서창현 역 (2012), 『노동하는 영혼 - 소외에서 자유허로』, 서울: 갈무리.
- Agnew, Spiro (1979), "In Defense of Sports", in Eitzen, D. Stanley (ed.), *Sport and Contemporary Society: An Anthology*, New York: St. Martin's.
- Clifford, Margaret M. (1972), "Effect of Competition as a Motivational Technique in the Classro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9: 123-137.
- Ehrenberg, Alain (1998), *La fatigue d'être soi: dépression et société*, Paris: Odile Jacob.
- Goldman, Morton et al. (1977), "Intergroup and Intragroup Competition and Cooper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81-88.
- Harari, Yuval N. (2015),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 Hoffmeyer, Jesper (2008), *Biosemitotics: An Examination into the Signs of Life and the Life of Signs*, Scranton and London: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 Sober, Elliott and David Sloan Wilson (1998),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Human Being in the Age
of Posthuman Semiocapitalism:**

Being of Mutual Cooperation rather than that of Competition

Lee, Eun-kyoung

The posthuman semiocapitalism, which has tried to surpass the biological limitations of human being with techno-scientific innovations and to transmute the human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algorithms into digital information, has transformed human labour into networked labor, that is, cognitive labor. Cognitive labour today has coerced even human souls into work and has degraded the uniquely human features, such as language, emotion, communication, creativity, and even imagination, into just tools of capitalistic values. In such a consumer-capitalist system of infinite competition, human beings lost their foundation of being and its meaning, and their self-realization and happiness thus has turned into a struggle to be the winner from the competition. As a result, the alienated losers of 99% from the top-tier of 1% fall into the state of tedium vitae, in which weariness, meaninglessness, hatred, depression and so on prevail over in their lives. This has led to the state of the depressive mind as one of the sociopathological syndromes in our society.

Such social pathologies generated from semiocapitalism would not go away unless one breaks away from the structure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 populism chasing the tails of the so-called winner. Competition based upon the binary division of winner/loser and the mutual hatred cannot lead to success in its real meaning but rather drive into a dissolution of society, for it motivates us to see competitors as enemies. What we need to overcome these social pathologies is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that will be the soul of creativity and thus that can generate a new alternative. Also our compassion, which is the basis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ould be based upon empathy seeing the pains of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s themselves, not sympathy understanding the other from my point of view. Such an empathetic coalition or cooperation should be the value one seeks for as the meaning of human being that one should recover from the semiocapitalist society, in which one loses one's way to the value for oneself.

【Keywords】 semiocapitalism, infinite competition, depression, empathy,
cooperation

논문 투고일: 2020. 09. 13

심사 완료일: 2020. 10. 07

게재 확정일: 2020. 10. 07

